



나의 수호천사 나무

김혜연 글 · 안은진 그림 | 176쪽 | 반양장 | 올컬러 | 변형판 | 9,500원 | 초등3학년부터
ISBN 978-89-491-2170-3 74800 | 2016년 4월 1일 펴냄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나는 뼈꾸기다』,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의 작가
김혜연이 들려주는 아주아주 오래된 우리 동네 나무 이야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마음을 흰 천에 담아 나뭇가지에 묶어 두었어.

나무가 소원을 하늘에 전해 줄 거라고 믿은 거지.

일종의 편지 같은 거야. 나는 나무의 힘을 믿어.”

『나는 뼈꾸기다』,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 등 특유의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동화작가 김혜연의 신작 『나의 수호천사 나무』가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김혜연은 깊이 있는 시선과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문체로 소박한 우리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다.

이번 신작 『나의 수호천사 나무』에서도 김혜연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따뜻한 필치로 담아냈다. 작가는 “오래된 나무는 자신의 고유한 영혼과 목소리를 지니며, 그 나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 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기까지 한다.”라는 문장을 만나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한다. 나무가 때론 사람에게, 사람이 때론 나무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며 삶을 함께 지켜간다는 큰 틀의 이야기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찰적 시선과 만나 온기 있는 이야기로 담겼다.

그림은 안은진 화가가 그렸다. 계절과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회화적 그림과 때때로 만화로 구성된 컷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야기의 재미와 감동 모두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다.

● 우리 동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그루

“난…… 쓸모없는 나무인 채로 죽고 싶지 않아.”

『나의 수호천사 나무』는 아주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마을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무는 왜 사라지게 됐을까, 그리고 이 나무가 없어짐을 유난히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이들은 누구이고 왜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나무와 인연을 맺은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흥미진진하게 밝혀진다. 팽나무는 한때 성황님이라고 불리며 고구마 아줌마에게 성준이라는 아들을 보내 준 비범한 나무였다.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을 때면 팽나무는 그 소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온힘을 다해 가지를 안타나처럼 뻗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번개를 맞아 모든 기억을 잃고, 처음 본 나무를 엄마로 여기는 박새 한 마리와 함께 마을의 관찰자로 마을을 지켜보며 살아가게 된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기력해진 나무에게 여전히 저마다 소원을 안고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의 삶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그 삶의 궤적이 작가의 담백한 필치로 따뜻하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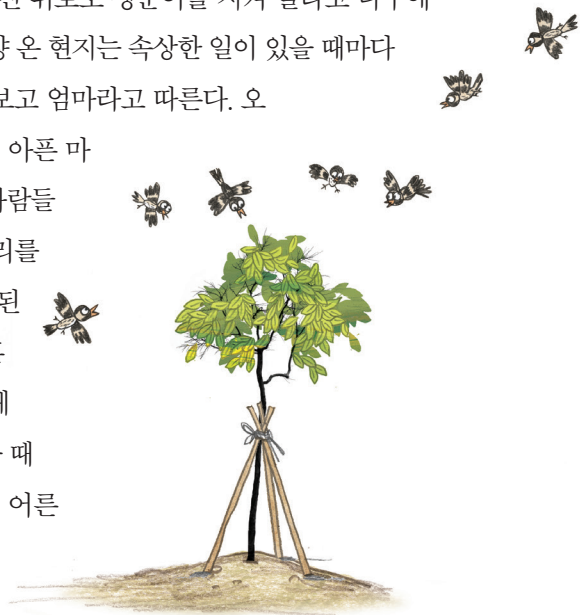
나무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박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만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위치가 되고도 어떻게든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무언가를 해 주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한 위로를 주고, 응원의 소리, 그리고 온힘을 다해 박새와 박새의 아기들을 지켜준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나무의 바람은 현지와 현우에게 야구배트와 축대가 되어 준다. 나무의 일생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떠올리며 사람들 마음속 물결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동행

“혹시 울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기다 촛불을 켜 봐. 그럼 이게 대신 울 거야.”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나무를 매개로 서로 이어져 있다. 고구마 아줌마는 팽나무 덕분에 소중한 아들 성준이를 얻었고, 성준이가 마을에서 사라진 뒤로도 성준이를 지켜 달라고 나무에게 와서 빈다. 몸이 좋지 않아 도시를 떠나 시골로 요양 온 현지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를 찾아 오고, 박새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나무를 보고 엄마라고 따른다. 오

랜 방향 끝에 집으로 되돌아온 성준이는 나무를 통해 아픈 마음을 치유해 가고, 나무는 자신을 믿고 바라봐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어 박새를 통해 도움 줄 궁리를 한다. 각자 사연이 다른 이들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와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보듬어 가는 모습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기댈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세상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곁에 있다는 믿음에서 어른과 아이 모두 위로받을 수 있다.



● 차례

아주아주 오래된 나무

그해 여름
번개치던 날
이상한 만남

3년 후 가을
기억을 잃은 나무와 왕관 쓴 새
고구마 아주머니
내 소원도 들어줄 수 있니?

겨울
나무가 보내 준 아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수상한 털보 아저씨
오늘의 주인공
공주의 짝

봄
공주가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
팽나무의 죽음
엄마가 된 공주

여름
재수 없는 나무? 쓸모 있는 나무!
안녕
눈물의 여왕과 번개 소년

작은 나무

작가의 말

● 작가 소개

김혜연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독문학을 공부했다. 아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오랫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04년 안데르센 그림자상을, 2009년 『나는 빼꾸기다』로 황금도깨비상을

받았다. 쓴 책으로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 『꽃밥』, 『도망자들의 비밀』, 청소년 소설 『가족 입니까』가 있다.

안은진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199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상을 수상했고, 영국 킹스턴 대학 온라인 과정 API(advanced program in illustration)을 수료했다. 그린 책으로 『나는 나의 주인』, 『달을 찾아서』, 『무엇을 탈까?』, 『놀라운 생태계, 거꾸로 살아가는 동물들』 등이 있다.